

중국 신시기 여성소설에 나타난 가족 담론의 일면

- 티에닝(铁凝)의 『목욕하는 여인들(大浴女)』를 중심으로 -

최 은 정
(계명대학교)

1. 들어가면서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타인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족’에 비유하는 것은 낮설지 않다. 기업 CEO부터 대학 총장, 슈퍼마켓 사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가족입니다’라고 운운한다. 이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침윤되어 있는 어떤 정서를 빠르게 이식시키는 하나의 장치로 작용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소개할 때 ‘형(오빠/언니)이나 다름없다’ 또는 ‘엄마 같은 분’이라는 표현은 타인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최고의 찬사로 들린다. 이러한 예들은 모두 “가족생활의 가치와 구조들이 사적인 가족과는 전혀 다르리라고 생각되는 여러 제도 또는 관계들의 조직이나 정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¹⁾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셸 바렛은 이를 사회의 가족화라고 하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력한 사회적 의미체가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라고 본다.²⁾ 그래서 혹자는 오늘날 가족은 결코 단일한 개념도 신성하고 자연스러운 제도도 아니며 인간 정신의 심층적인 구조와 사회 문화적 관계가 얽혀있는 역동적인 생활의 장이

1) 미셸 바렛, 메리 매킨토시 지음, 김혜경 옮김,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여성사, 1994, 44-45쪽.

2) 같은 책.

라고 보기도 한다.³⁾

이는 중국현대소설사를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세기 초 중국에서 ‘가족’은 전통과 반(反)전통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대화를 역설하는 중국의 지식인들은 중국 봉건제도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가족’에 들이대면서 새로운 가족의 구축을 주장하였다. 1920-30년대 중국현대소설을 살펴보면, 처음 전통에 대한 부정의 입장에서 가족 문제를 논의하던 것에서 점차 다양한 관점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이상적인 가족 유형으로 제시된 서구식 핵가족에 내재한 문제점을 포착해내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는다.⁴⁾ 쉬디산(许地山)의 「춘타오(春桃)」는 두 남자와 함께 사는 한 여성의 이야기이며, 빙신(冰心)의 「사진(相片)」은 미국에서 온 여교사와 그녀가 입양한 중국인 딸의 이야기이다. 이들을 ‘가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경제적 빈곤 때문에 아내나 딸들을 팔아버리는 무책임한 가족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딸을 이용하는 무정한 아버지⁵⁾보다 더 ‘가족답다’⁶⁾. 이들은 혈연과 혼인으로 매개된 것을 ‘가족’으로 정의하는 가족의 개념, 가족의 경계를 여실히 허물어뜨린다.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가족은 ‘혈연공동체’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이다. 그 바탕은 기독교적인 박애정신과 모성일 것이다. 이것이 지니는 가치 판단은 일단 유보하기로 한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가족의 의미, 가족 구성의 원리이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 가족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보편적인 가족으로 인식되었던 전

3) 우미영, 「현대소설과 가족의 탈근대」, 『한국문예비평연구』 21호, 2006, 31쪽.

4) 이는 주로 여성작가 작품을 통해 나타났는데, 가족구조의 변화와 상관없이 가족이란 여전히 여성에겐 억압이요 굴레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庐隐, 沉樱 등의 작품이 가장 대표적이다.

5) 「为奴隶的母亲」(柔石), 「月牙儿」(老舍), 「生人妻」(罗淑) 등은 빈곤으로 아내를 팔거나 또는 딸이 윤락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무정한 가족들과 이를 가족을 위한 희생 또는 효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감내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서술한다. 『子夜』(茅盾)에서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딸을 이용하는 무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물질적인 이익에 의해 지배당하는 가족관계를 드러낸다.

6) 여기에서 ‘가족답다’는 것은 경제적 공동체로서 가족의 물리적인 의미와 더불어 돌봄, 휴식, 보호 등 ‘가족’이 수반하는 보편적 기대에 따른 것이다.

통적인 가족이 무너지고, 이상적인 가족으로 근대적 핵가족이 제시되었지만 이 또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중국현대소설, 특히 여성소설을 통해 읽어왔다. 가족은 이리이러하다는 가족 이데올로기는 상당히 가변적으로 가족 개개인에게 다르게 작동하면서 억압의 기제가 되고 있음도 발견한다. 그런데도 어떤 위기의 틈새만 있으면 나타나는 것- 1980년대 중반 이후 가족사소설 창작 붐이나 신시기 여성소설에서 나타나는 가족서사 등으로 볼 때 -은 이상화된 ‘가족’에 대한 향수가 아닐까 싶다. 요컨대, 가족은 끊임없이 해체되면서도 여전히 호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신시기 여성소설에서 문제 삼고 있는 가족 관련 논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중국 신시기 여성소설에 나타난 가족은 우울하고 어둡다. 7) 이는 작품에 드러난 가족에 대한 인식과 가족 개개인의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에게 가족(남편/아내)은 신분상승을 위한 매개(铁凝, 「对面」)이거나 물질적 욕망을 채워주는 장(铁凝, 「午后悬崖」)이다. 형제자매들은 ‘집(물질)’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고(方方, 「黑洞」), 배다른 동생이라고 소외시켜버리는 무정한 사람들(虹影, 『饥饿的女儿』)이다. 이유는 제각각이겠지만, 아버지는 멀리 떠나 있거나 무능력하거나 폭력적이어서 가족해체의 중심에 자리한다(迟子建, 「岸上的美奴」; 方方, 「风景」; 「午后悬崖」등). 어머니는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 딸의 희생을 강요하거나(方方, 「落日」) 딸에게 전혀 애정을 쏟지 않는 무관심한 어머니(徐小斌, 『羽蛇』)이기도 하고,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딸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 딸을 맹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독한 어머니(徐小斌, 「天籟」)이기도 하다.

이처럼 신시기 여성소설에서 나타나는 것은 가족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다. 이는 외형상으로는 불완전한 가족으로, 정서상으로는 소외로 가시화 되어, 가족이 사라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가족을 지키고 세우고자 하는 강한 바람도 엿보인다. 이는 특히 티에닝의 가족 담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티에닝의 작품에 나타나는 가족의 모습은 다양하다. 부부

7) 邵宁宁은 1980, 90년대 가족서사의 특징으로 소가족을 중심으로 각 가족 내부에 은닉되어 있던 갈등과 모순들이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것은 특별히 여성서사에서 두드러진다고 보았다. 「牢笼抑或舟船-20世纪中国文学中"家"的形象演变」, 『西北师大学报』, 1999年9月, 27쪽.

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모델을 소위 ‘정상가족(normal family)⁸⁾’이라고 한다면, 그녀가 묘사하는 ‘가족’은 이것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장미문(玫瑰门)』의 쑤메이(苏眉)를 보면, 마땅히 그 성장에 주요한 영향을 끼쳐야 할 가족으로 기대되는 어머니 아빠는 부재하다. 대신 그녀는 동생과 함께 외할머니 스치윈(司绮纹) 집에서 성장한다. 「영원은 얼마나 멀까(永远有多远)」의 여주인공 바이다싱(白大省) 또한 부모 부재 하 할머니의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 「오후의 낭떠러지(午后悬崖)」는 모녀가정에서 성장한 딸의 이야기이다. 정상가족이란 개념은 가족이란 마땅히 이리이러해야 한다는 강력한 규범을 만들어낸다⁹⁾는 함인희의 견해를 떠올려 보면, 이러한 불완전한 ‘가족’의 모습에 대한 서사화는 일면 사회적으로 강력하게 규범화된 ‘가족’을 다시 쓰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티에닝은 이를 통해 가부장제 가족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것을 체화한 여성의 비극을 묘사하기도 한다. 또한, 아버지 혹은 어머니 부재 하에서 성장한 딸들이 ‘딸’에서 ‘아내’ 혹은 ‘어머니’로 어떻게 정체성을 구성하며 ‘가족’을 형성해 가는지를 그려내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가족은 왜 해체되는지에 관한 문제 제기로부터 ‘가족’을 사유할 공간을 제공한다. 결국 티에닝은 가족의 해체를 문제 삼으면서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목욕하는 여인들』은 이러한 가족 담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출간된 이 작품은 “2000년에 막 진입한 도서시장에 나타나 시선을 사로잡은 하나의 풍경”¹⁰⁾이라는 평에서 알 수 있듯, 대중적으로 상당히 성공을 거둔 작품이다. 동시에, 평단의 주목도 이끌어내면서 티에닝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주인공인 인샤오타오(尹小跳)가 어떻게 어린 시절 저지른 죄에서 탈각하여 자기구속을 이루는지에 주목한다. 이로부터 ‘인성(人性)탐색’이라는 티에닝 서사의 중요한 주제를 잡아내는 것이다. 이리할 경우 제목인 ‘大浴女’의 욕을 영혼(인간의 내면, 정신 등으로 보아도 무방하다)의 씻음으로 풀어내기도 한다. 세위

8) 함인희, 「한국 가족의 여성학적 재구성」, 『동덕여성연구』 제5호, 2000, 48쪽.

9) 같은 글.

10) 王一川, 「探访人的隐秘心灵—读铁凝的长篇小说《大浴女》」, 『文学评论』, 2000年6期, 54쪽.

어(謝玉娥)는 이를 각성이나 깨달음과 동일시한다.¹¹⁾ 자오환환(趙欢欢)은 ‘욕’이 ‘欲’과 동음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주인공 샤오타오가 욕망을 넘어서서 영혼의 씻음을 통해 자아완성을 이루었다고 분석하면서, 그 과정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인성을 잘 풀어냈다는 데에 작품의 의미를 둔다.¹²⁾ 그 중, ‘인성의 탐색’이라는 것에 작품의 중요한 의의를 두고는 있지만, 양성관계에 끼친 전통적인 윤리규범의 영향이 상당하다는 전제 하에, 전통적인 윤리규범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각기 다른 인식들 및 대처방식 등으로부터 인성의 내밀한 부분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는 장옌핑(張燕萍)의 견해는 숙고할 만하다.¹³⁾ 그 밖에, 티에닝 소설에 나타난 어머니 분석이라는 틀 안에서, 작품 속 어머니 형상을 분석하기도 한다. 이때 주로 어머니 장우(章妩)의 모성 부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장우를 통해 모성을 다시 쓰고 있다고 평가한다.¹⁴⁾

흥미로운 것은 많은 논자들이 주목하는 샤오타오의 성장과정에 나타나는 죄의식이 ‘가족’과 맞물려 있다는 데에 있다. ‘가족’이라는 문제로부터 접근할 때, 그녀의 ‘죄’는 가족의 본질에 대한 물음부터 가족은 왜 해체되는지, 여기에 가족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이다. 이에 본고는 이 작품을 통해 가족 해체의 양상 및 해체된 가족의 화해를 위한 기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가족의 위기와 화해에 대한 기대

1. 가족이란 무엇인가 : 혈연성과 배타성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부장제에서 가족은 부계혈통에 따른 혈연관계나 친자를 중심으로 하는 수직관계가 중심 골격을 이룬다. 이로부터 혈연성, 즉 피

11) 「“大欲”之后的“大浴”—“大浴女”性别意向解读」, 『河南大学学报』, 2001年3期.

12) 「“欲”与“浴”—论铁凝的小说《大浴女》」, 『周口师范学院学报』, 2003年第6期.

13) 「洞察女性 展示人性—评铁凝长篇小说《大浴女》」, 『河南大学学报』, 2005年5期.

14) 刘成才, 「无母’审母与自审意识—铁凝小说中的母亲形象分析」, 『太原师范学院学报』, 2006年4期; 擘风兰, 「母性符号的改写, 女性人格的重建—解读铁凝的《大浴女》」, 『武汉科技学院学报』, 2005年11月.

를 나누었다는 혈육의 정은 가족 상상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바탕이 된다. 이러한 혈연주의에 바탕을 둔 가족상상은 가족의 가치를 따스함, 위안, 보호 등등과 연동시킨다. 앞서 서술했듯, 어떤 집단이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족을 운운하는 것은 바로 가족이 내재하고 있는 이러한 가치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가족의 이러한 가치에 대한 기대는 혈연성이 배태하고 있는 가족의 또 다른 본질, 즉 배타성을 왕왕 간과하도록 이끌기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가족 내에 존재하는 배타성의 문제이다. 『목욕하는 여인들』이 짚어내고 있는 가족 관념의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혈연성에 입각한 가족 내의 배타성에 있다. 이로부터 그녀는 가족의 의미를 되묻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말이 샤오타오, 둘째 샤오판(小帆)과 막내인 샤오촨(小筵)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샤오타오와 샤오판의 서로에 대한 감정은 샤오촨에 대한 이들의 감정과 확연하게 다르다. 샤오타오에 대한 샤오판의 사랑은 “좀처럼 깨질 수 없을 만큼 단단한 것”¹⁵⁾이다. 사과와 갈치를 좋아하는 샤오판을 위해 샤오타오는 스스로 “사과와 갈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배우고, 샤오판이 먹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흐뭇한 일”이라고 느낀다.(118쪽) 샤오판의 시큼한 발 냄새까지 좋아하며 그녀를 위해 매일저녁 발을 씻겨주는 샤오타오의 모습은 흡사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연상시킨다. 요컨대, 샤오판에 대한 샤오타오의 감정은 사랑과 헌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이런 샤오타오에 대해 샤오판 또한 절대적인 복종과 신뢰, 사랑으로 언니를 대한다. 막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먼저 언니를 칭찬하는 데 열중했고, 행동과 말을 통해 세상만물이 다 변해도 그들 자매는 한마음 한뜻이며 이 이치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리라는 것을 언니가 믿도록 한다. 사랑과 헌신의 바탕 위에 강한 유대감으로 묶여 있는 이들의 자매관계는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상상이 그대로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샤오촨에 대한 샤오타오의 태도와 감정은 드러내고 싶지 않으나 숨겨져 있는 ‘가족’이라는 것의 비루함을 날것으로 보여준다. 샤오타오에게 있어 샤오촨은 그야말로 일거리일 뿐이다. 샤오촨이 태어난 후, “샤오타오는 해야

15) 铁凝, 『大浴女』, 人民文学出版社, 2006, 117쪽. 이하 작품 인용은 본문에 표기하기로 한다.

할 일이 아주 많아졌다.” 엄마 장우는 샤오촨의 우유를 데우는 일부터 기저귀를 빼는 일까지 모두 샤오타오에게 맡겨버리는데, 샤오샤오는 “엄마가 시키는 일을 대충대충 처리”한다. 뿐만 아니라, 샤오촨에게 주려고 사온 주스나 샤오촨의 로우송(肉松)을 샤오판에게 먹인다. 엄마의 명령으로 샤오타오를 지켜보기는 하지만 샤오촨을 지켜보는 시선은 “냉랭”할 뿐이다. 심지어 그녀를 지켜보며 샤오타오는 “은뎀으로 불편함”을 느낀다.(119-120쪽) 언니와는 다른 이유지만, 샤오촨에 대한 샤오판의 미움 역시 자매에 대한 통상적인 기대를 무너뜨린다. 그녀의 혐오는 질투에 근거한다. 샤오촨의 탄생으로 “뒤틀방신세”가 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녀의 질투는 어린아이의 그것으로 이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언니 샤오타오의 감정과 결탁되어 샤오촨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중요한 고리가 되었다는 데에 있다. 샤오촨에 대한 배타는 자매의 “소파놀이”에서 가시화된다. “소파놀이”라 함은 딱딱한 의자 위에 오리털 베개를 올려놓고 그 위에서 “뒹구는 것”이다.

그녀는 침대에서 베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자신이 차지하고 다른 하나는 여동생 인샤오판에게 주었다. 두 자매는 오리털 베개를 딱딱한 의자 두 개에 나눠 평평하게 엮은 다음, 그 위에 앉았다. 허리를 좌우로 흔들며대면서 부드러운 베개 위에서 ‘뒹굴었다’.(중략) 두 아이는 집밖으로 소문낼 수 없는 편안함을 누리며 ‘소파’ 위에 모로 누워 해바라기 씨를 까먹거나 산사나무 열매를 먹곤 했다. 그럴 때면 방 한쪽 구석에 있던 인샤오촨은 몹시 안타게 팔을 흔들었다.(중략) 아이가 고꾸라질 듯 달려온 것은 두 언니의 ‘소파놀이’에 끼고 싶다는 뜻이 분명했지만 언니들은 막내를 거들떠 볼 생각도 없었다. 두 자매는 샤오촨에 대해 철저히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다.(1-2쪽)

샤오촨에 대한 이들의 냉대와 질시는 샤오촨의 귀여움, 샤오촨을 대하는 동네 어른들의 친근함과 대조를 이루면서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렇다면, 샤오타오의 이러한 태도는 어디에서 연유하는 걸까. 샤오촨이 같은 아버지의 피를 받았는데 대한 의구심이다. 샤오촨은 장우가 병가를 얻어 집에 돌아온 후 태어난 동생이다. 사실 장우가 정말 병에 걸렸는지의 여부는 명확

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농장에서 노동하는 생활을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처음 농장에서 쓰러져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힌다. 이 욕망은 그녀가 의사인 탕(唐)선생을 유혹하여 그녀에게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유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할 만큼 강하다. 그 결과 그녀는 장기간 요양이 가능한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샤오촨은 그녀가 요양하는 동안 태어난 것이다. 샤오타오는 샤오촨에 대한 의구심을 입 밖으로 드러내는 대신, 냉대와 질시로 그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아버지의 피를 받은 동생 샤오판에 대한 더 절절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녀는 인샤오촨의 탄생이 매우 불만스러웠다. 그 불만을 드러내기 위해 그녀는 갑절로 인샤오촨을 냉대했고, 갑절로 인샤오판을 아꼈다.”(117쪽)

이렇게 보자면, ‘소파’는 혈연으로 묶인 가족의 공고함을 드러내는 장이자 그 혈연성에서 파생된 배타성이 날 것으로 드러나는 장인 셈이다. 작품의 프롤로그가 어른이 된 샤오타오의 거실에 놓인 ‘소파’로 시작되는 것도 ‘소파’가 갖는 상징성을 보여준다. ‘소파’가 어린 시절 그녀의 ‘가족’ 상상으로부터 배태된 ‘죄’와 연동됨을 볼 때, 어른이 된 그녀가 결코 3인용 소파에는 앉지 않는다는 것은 그녀가 안고 있는 죄책감을 설명하는 것이리라 본다. 그녀의 성장이 자아구속과 맞물려 있음을 떠올려 본다면, 3인용 소파를 피하는 그녀의 모습은 성장한 그녀가 어린 시절 그녀의 가족상상, 혈연으로 묶인 가족에 대한 기대와 상상에서 비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 가족은 왜 위기에 처하는가 : ‘엄마’의 ‘여성’ 되기

샤오촨에 대한 샤오타오의 배타심은 엄마 장우에 대한 배신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샤오타오는 “장우가 돌아와서 집안 체면을 받쳐주길 원했다”(53). 그 집이란 아빠와 엄마, 샤오판과 자신으로 이루어진 집이다. “옛날 베이징에 살 때, 일요일이면 아빠엄마가 우릴 데리고 자금성이며 베이하이 공원에 가주셨던 일이 생각나요.(중략) 밤국수를 먹고 날이 어두워져서야 공원에서 나왔었지요, 매번 아빠는 저를 업고 엄마는 샤오판을 안고 있었잖아요.”(65-66쪽) 이런 ‘가족’을 상상하는 그녀에게 있어 샤오촨은 엄마가 그녀의 기대를 무너

뜨렸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아빠와 엄마, 사오판과 그녀로 이루어진 집의 틈새인 썸이다. 다시 말해, 장우의 일탈은 ‘가족’을 흔드는 기제인 것이다.

기실 장우의 일탈은 가부장제 가족이데올로기 안에서 ‘어머니’로 코드화된 여성 몸의 탈영토회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가부장제 가족이데올로기에서 ‘어머니’는 가족 관계를 지칭하는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서, 가부장제에 의해 부여된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리 샌더스 코머에 따르면, ‘가족’은 사실 ‘어머니’를 뜻한다. 이렇게 ‘가족’이 ‘어머니’와 등치될 때,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여성의 역할은 ‘남편과 자녀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자’¹⁶⁾로 제한된다. “‘자연스러운’ 엄마는 엄마라는 것 외에 더 이상의 주체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가설이 성립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어머니의 전형”이 만들어져서, ‘엄마’라는 정체성으로 환원되지 않은 또 다른 여성 정체성은 “비정상적이고, 기괴한 것”으로 인식된다.¹⁷⁾ 여성이 ‘어머니’로 호명될 때, 그녀는 가부장제의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무성화(無性化)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여성중심적인 욕구와 필요를 가질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훌륭한 어머니는 개인적인 친구 또는 가족과 연관되지 않은 나뉠대로의 계획을 가져서도 안 된다.”¹⁸⁾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장우는 어머니답지 않은 어머니이다. 여기에서 ‘어머니답지 않다’는 것은 가부장제 가족이데올로기에서 기대하는 무성화된 ‘어머니’를 탈각했다는 뜻이다.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보다는 오로지 자기 몸의 욕망에 집중한다. 편안함, 쾌락, 희열 등등. 그래서 어린 딸이 만들어오는 음식을 침대에 누워 받아먹으면서 그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탕 선생과의 관계를 통해 그녀가 느끼는 희열은 곧 ‘무성화’된 ‘어머니’에 대한 ‘여성’의 반란이다. 그녀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고백이 이를 증명한다. “그의 늘씬하고 야무진 상체가 그녀의 풍만한 몸을 압박하자 그녀의 영혼은 돌연 일종의 사상초유의 편안함을 맛보았다. 그렇다, 편안함, 그녀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때서야 장차 탕 선생

16) 아드리엔느 리치, 김인성 옮김,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2002, 63쪽

17) 같은 책, 21쪽.

18) 로즈마리 톱, 『페미니즘 사상』, 한신문화사, 1999, 134쪽.

이 진정으로 자신을 거두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의 순수한 욕망의 문이 이 낯선 편안함에 가차 없이 열려버렸다.”(51쪽) 탕 선생과의 만남을 앞두고 들떠서 준비하는 그녀의 모습은 ‘어머니’가 되기 전 ‘여성’의 모습을 투영한다. “거울 앞에 서서 나갈 준비를 할 때의 장우는 침대에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불을 붙여 환해진 촛불처럼 그렇게 뜨거워지고 생기발랄해져서 온몸으로 빛을 발산했다.”(61쪽) 이처럼, 장우가 ‘어머니 장우’가 아닌 ‘여성 장우’로서 자기 정체성을 새로 쓰고자 할 때, 그녀의 몸은 생산과 양육의 장으로 코드화된 육체가 아닌 쾌락을 위한 장으로 재편성된다. 몸의 탈영토화인 것이다.

장우가 ‘어머니’로부터 탈각된 것에 대해 티에닝은 가부장제가 기대하는 ‘어머니’ 또는 ‘모성’이 기실 만들어진 것임을 암시한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기를 원한다 해도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아이를 안아줄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모성이라는 빛이 비추주길 바란다 해도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모성이라는 빛을 뿜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53쪽) 이는 일면 장우의 ‘어머니답지 않음’에 대한 작가의 변(辨)으로 보인다. “엄마가 왜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는지 모르겠다”(65쪽)며, ‘어머니답지 않은’ 장우에게 실망하는 샤오타오에게 전하는 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답지 않은 어머니 장우에 대한 작가의 시선은 상당히 냉정하고 비판적이다. 작가의 붓끝에서 ‘어머니’ 장우가 아닌 ‘여성’ 장우는 딸에게 “낯선 엄마”로 비웃음거리가 된다. 또, 엄마의 역할 수행보다 자기 몸의 안락함에 먼저 반응하기에 그녀는 “게으른 여자”로 읽힌다. 심지어 탕 선생에 대한 장우의 갈망, 샤오환의 출산까지도 ‘게으름’의 소산으로 분석한다.(126쪽) 어머니답지 않은 어머니 장우에 대한 티에닝의 이러한 냉정함은 그것이 가족의 위기를 부른다고 보기 때문이다. 샤오타오가 엄마의 일탈을 암시하는 편지를 아빠에게 쓰면서 가족들이 함께 살던 옛 시절을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곧 가족의 해체위기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한다. 샤오환이 맨홀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둔 것도 가족해체의 “고통을 없애”기 위한 샤오타오의 선택이다. 남편인 인이쑤(尹亦尋)이 장우의 불륜을 드러내놓고 비판하지 않는 것은 가족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가장으로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고자 함이다.

엄마의 일탈이 이들 가정을 철저하게 해체시키고 있음은 가족들의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 샤오촨이 죽은 후, 모든 게 “평온해”졌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외형상 정상가족일 뿐 기실은 “요새가족(fortress family)”¹⁹⁾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는 먼저 이들 자매의 감정 변화로부터 감지할 수 있다. 오랜 만에 만난 자매가 트렌치코트 한 벌을 두고 갈등하는가 하면, 샤오타오의 “작은 실수”를 나무라고 그걸로 인해 다투는 모습에서는 어린 시절 더 이상 갈치와 사과를 좋아하는 동생을 위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법을 배운 샤오타오의 모습이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언니의 장바구니를 굳이 들어주던 샤오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샤오타오의 모든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샤오판은 언니 옆에서 언니 편을 들고 언니를 사랑스러워하던 그 꼬마아이가 아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이 고통의 실체”(235쪽)인 샤오판의 모습에서 샤오타오가 이미 그녀에겐 ‘언니’로 자리하고 있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 “목숨처럼 서로를 의지”하던 이들 자매는 오히려 분리되고 만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언니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언니를 숭배하지도 않았다. 마음속에 견어낼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언니 샤오타오는 더 이상 그녀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얻을 수 없을 것이었다.”(201-202쪽) 샤오타오에 대한 샤오판의 감정변화는 그들 자매가 목인한 샤오촨의 죽음과 관련된다. 그녀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견어낼 수 없는 그림자”가 바로 이것이다. 자신이 일곱 살이었을 때 일어난 샤오촨의 죽음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맨홀에 빨려 들어가는 샤오촨의 모습과 함께 샤오촨을 붙잡으러 가는 대신 둘이 꼭 맞잡고 있던 손을 기억하며 언니가 자신의 손을 잡아끌었다고 믿기 위해 노력한다. 대신 그녀는 훨씬 더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하고, 샤오타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샤오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언니에게 전가함으로써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아버지 인이원과 샤오타오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엄마의 일탈

19) 정상가족 상황을 외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족 내부의 균열과 갈등을 위장하고 있는 가족을 말한다. 함인희는 이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폐해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설명한다. 함인희, 위의 글, 48쪽.

이 가져올 가족해체를 한 마음으로 지키고자 했지만, 오히려 이것은 이들 부녀 사이에 말 못할 장애가 된다. 딸에게 그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아버지로서의 존엄마저 상실”해버린 사람으로 비친다. 아버지와 딸의 심리적인 거리는 서로가 느끼는 불편함에서 나타난다. “인샤오타오는 마지못해 인이현을 따라 그의 서재로 들어가 일부러 아버지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의자를 골라 앉았다.”(294쪽) 모녀 사이의 골은 더 깊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모녀관계를 기대하지만 샤오타오에게 있어 엄마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한 마디도 꺼내놓을 수 없게 만드는” 존재일 뿐이다.(294쪽) 장우와 인이현의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비록 인이현이 샤오찬을 “내 딸”로 호명하며 장우의 일탈을 애써 덮었으나, 기실 그들 관계는 껍질뿐이다. 인이현은 장우의 일거수일투족을 질책하고, 장우는 이런 남편을 “회피”한다. “인이현이 갈수록 대놓고 그녀를 혐오”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처럼 파편화된 가족관계로부터 티에닝은 ‘엄마’의 일탈이 야기할 수 있는 가족의 위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엄마 같은 엄마’에 대해 티에닝은 어떻게 상상하고 있을까. 탕페이(唐菲)의 엄마 탕진진(唐津津)을 통해 일면이나마 엿볼 수 있다. 탕진진은 남편은 아니지만 딸의 아버지인 어떤 남자와 딸을 보호하기 위해 똥물을 먹는 오욕을 감수하고 결국 자살한다. 딸의 아버지와 딸의 명예 및 이들의 안위를 자기 목숨과 맞바꾼 것이다. 제도로 공고하게 세워진 가족은 아니지만 그녀가 ‘가족’이라 여기는 ‘가족’을 보호하고자 희생한 탕진진에 비추어 볼 때, 티에닝이 기대하는 ‘엄마 같은 엄마’란 ‘가족’을 세우고 유지하는 토대이다.

이렇게 장우의 일탈과 이로부터 가족의 위기를 읽어내는 티에닝의 가족 쓰기는 여성의 육체를 “가부장제가 세워진 토대”²⁰⁾로 보는 가부장제 가족이 데올로기를 떠올리게 한다. 여성의 정체성을 무성화된 어머니로 제한하고, 어머니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의 몸은 가부장제를 흔드는 토대로 보는 가부장제 가족이데올로기의 불합리성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이는 물론 엄마의 일탈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버지의 일탈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가부장제 가족이데올로기의 불평등한 성별인식에 작가 역시 은연 중 체화되어

20) 아드리엔느 리치, 위의 책, 64쪽.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이다.

3. '가족'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 '어머니' 호명

'엄마답지 않은 엄마'에 의해 파편화된 가족은 어떻게 그 틈을 메울 것인가. '엄마답지 않은 엄마'가 초래한 가족의 위기는 '엄마다운 엄마'에 기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장우를 통해 구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샤오촨의 죽음 후 장우의 변화를 보면, 티에닝은 장우의 '엄마'로의 재코드화를 통해 가족해체라는 위기의 극복과 화해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샤오촨이 맨홀에 빠져 죽은 후 장우는 '엄마'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장우의 반성은 '엄마'로서 그녀가 느끼는 책임감에 기반하고 있다. 때문에 샤오촨의 죽음을 "본분을 저버리고 제 살 궁리만 하면서 경솔하게 행동했던 모든 죄에 대한 하늘의 보응"(127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본분"이라 함은 '어머니'로서의 '본분'일 것이다. '어머니' 장우에 앞선 '여성' 장우로 누렸던 시간을 "일장춘몽"이라고 깨닫는 그녀의 모습은 '엄마'로의 재코드화를 예측케 한다. '엄마'로 재코드화한 장우의 모습은 샤오촨이 죽은 후 탕 선생과의 만남에서 보다 더 구체화된다.

장우는 오히려 그에게 호응하지 않는 것이었다. 고의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움츠러들어 있었다. 이는 탕 선생으로서의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제껏 그는 그녀의 영접과 주동적인 태도, 별거벗은 육욕과 그녀 어디에나 다 있는 느슨함에 익숙해져 있었다.(중략)

그녀는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129-130쪽)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엄마' 장우는 '여성' 장우와 달리 탕 선생을 거부한다. 장우에게 있어 탕 선생은 그녀 욕망의 투사체이다. 탕 선생과의 관계는 그녀가 자신의 욕망을 '호르는 대로 둠'으로써 만들어지고 유지된 것이다. 그녀에게 있어 관계의 단절은 욕망의 거둠이다. 무성화된 '엄마'로의 복귀인 것이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에서 그 복귀는 방점을 찍고 있다. '엄마'로 돌아오고 싶은 장우의 처절함은 그녀가 성형을 통해 자신의 과거

를 지우고자 했던 것에서 절정을 이룬다. “내 모습을 바꾸면 지난날의 나를 지울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품었어. 지난날의 그 나를 지우면 지난날의 기억도 지워질 것 같았거든.”(329쪽)

그런데, 장우가 ‘엄마’로 복귀하고자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것이 해체된 가족을 화해하도록 이끄는 힘은 되지 못한다는 것에서 ‘엄마’의 일탈을 대하는 티에닝의 단호한 시선이 엿보인다. 대신 티에닝은 가족 화해의 동력을 샤오타오에게서 찾는다. 샤오타오의 모성 자각이 그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만남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관심과 보호의 갈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렇다, 그녀는 여태껏 어머니를 보살피거나 보호한 적이 없었다. 애원, 원망, 거리감, 무시가 이들 모녀 관계의 전부였다. 지난날 장우가 가족들을 배반한 것에 대한 내면의 성토가 인샤오타오의 모든 생활을 관통하고 있었고, 이는 그녀가 여러 해를 거듭해오며 줄곧 어머니를 무시한 가장 쟁쟁한 이유이기도 했다. 장우는 이 무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두 모녀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었다. 지금, 백화점 이 계산대 앞에서 위세 부리는 젊은 여자 두 명이 인샤오타오의 내면 깊은 곳 모성이란 감정을 일깨웠다. 그녀는 이것이 틀림없이 일종의 모성이라는 감정이라고 단정했다. 딸은 모성이라는 감정을 얻어야만 자기 엄마를 소중히 대하고 사랑으로 돌볼 가망이 생긴다.(328쪽)

인용한 문장은 샤오타오가 백화점에서 곤경에 처한 어머니를 우연히 목도한 순간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서술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샤오타오가 느끼는 모성은 낯고 기르기의 생물학적인 모성을 넘어, 윤리적 차원으로 승화된 모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윤리적인 차원으로 승화된 모성은 보호와 돌봄의 윤리를 내포한다. 엘리스 재거는 어머니 역할을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양육하고 돌보는 관계”²¹⁾라고 확장한 바 있다. 그녀의 견해에 따르면 어머니 역할은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사라 루딕도 모성을 돌보는 사람의 여러 가지 역할들로 규정하면서, ‘모성적 사고’는 ‘모성적 실천’으로부터 자

21) 로즈마리 통, 위의 책, 129쪽

라한다고 주장한다. 모성적 실천은 보호와 성장을 요구하는 타자인 어린 아이의 실재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므로,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얻은 것을 지키고, 허약한 것들을 보존하고, 어린아이의 생활에 가까이 있고, 어린아이의 생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유지해주는 일을 우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태도이다. 그녀는 이 양식들이 새로운 공공윤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²²⁾ 캐롤 길리건은 여성의 도덕적 추론 양식이 남성과 다르다고 보면서, 남성의 도덕적 관점은 ‘정의의 윤리’이지만, 여성의 도덕적 관점은 ‘보호의 윤리’라고 한다. 그녀에 따르면, 여성의 도덕적 발전은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입장에서부터 지나치게 이타적이거나 자기희생적인 입장을 거쳐 그녀의 이해관계가 타인의 이해관계만큼 중요하게 되는 타인과 함께 하는 자아의 입장으로 이끌어간다.²³⁾ 이렇게 보호와 돌봄의 윤리를 내포한 모성은 ‘엄마’로 재코드화된 장우가 보여줄 수 있는 ‘모성’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엄마’로 돌아온 장우의 모성은 오히려 자책감에 가깝다. 이타적인 보호와 돌봄의 윤리보다는 책임과 의무의 윤리가 강하다는 뜻이다.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느끼거나 책임과 의무를 다 해도 상응하는 보답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언제나 자기중심이 될 소지가 높다. 샤오타오가 여전히 그녀를 “엄마는 엄마밖에 모른다”고 느끼는 이유일 것이다.

샤오타오가 보호와 돌봄의 윤리로서의 모성을 자각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이들 가족의 틈새를 메우는 바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모녀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이를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장우의 일탈은 이들 가족과 모녀관계가 무너진 원인이다. 어린 샤오타오는 한마음으로 엄마의 일탈을 저지하며 그녀에게 저항했다. 이는 샤오촨이 맨홀에 빠질 위험에 처한 것을 목도한 순간 샤오판의 손을 저지하고, 결국 샤오촨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에서 그 극점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샤오타오의 이런 행동 아래 깔린 그녀의 자기 정체성 인식이다. 샤오타오에게 있어 샤오촨은 ‘엄마의 딸’이지 ‘아빠의

22) 조세핀 도노반 지음, 김익두·이월영 옮김, 『페미니즘 이론』, 문예출판사, 1998, 320-321쪽.

23) 로즈마리 통, 위의 책, 259쪽.

딸'은 아니다. 즉, '아빠의 딸'인 샤오판과 달리 샤오촨은 그녀가 보호하고 사랑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샤오촨을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둔 것은 샤오타오가 '아빠의 딸'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어른이 된 그녀가 "아빠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었기에 (아빠의) 딸로서 우리 집안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내가 옛날에 저지른 그 무섭고도 어리석은 행동을 아빠는 평생토록 알 수 없을 것"(298쪽)이라는 회한 어린 고백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런 그녀가 장우에 대해 느끼는 보호와 보살핌의 감정은 이들 모녀관계가 갈등에서 화해로 나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설명한다. 이는 샤오타오가 엄마의 딸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마침내 인정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주목할 점은 장우를 보호와 보살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아버지와 여동생 샤오판에 대한 그녀의 시선도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모님을 이해하고 여동생을 인내하는 샤오타오의 모습은 분명 파편화된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는 교량이 되리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샤오타오의 모성자각과 이로 부터 비롯되는 가족화해에 대한 기대는 아버지의 딸로서 딸의 정체성 인식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시선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샤오타오가 아버지와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선택한 행동이 오히려 아버지와의 분리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딸로서 서로 목숨처럼 의지했던 여동생 샤오판과의 분리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요컨대, 티에닝은 보호와 돌봄의 차원으로 승화된 모성을 통해 해체된 가족의 화해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로 보자면, 티에닝의 '가족' 호명은 곧 '어머니' 호명이다. 여기에서 '어머니'는 해체된 가족을 치유하고 통합시킬 수 있는 힘이다. 결국, '가족'이 해체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헌신, 돌봄과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어머니'를 호명하고 있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어머니' 호명이 갖는 양가성이다. 한편으로는 보호의 윤리 차원으로 승화된 모성이 자칫 여성을 억압할 또 다른 도덕기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²⁴⁾ 티에닝이 바로 앞선 해에 발표한 「영원은 얼마나 길까」의 바이다싱을 보면 그러하다.²⁵⁾ 이는 가

24) 로즈마리 퉁, 위의 책, 263쪽.

25) 줄고, 「铁凝의 <영원유다원>에 대한 소고-여성의 욕망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65집 참고.

부장제 전통적인 ‘가족’ 상상에 내재된 ‘어머니’ 상상에 작가 자신 또한 무의식중에 일정 정도 포섭되어 있지 않은가에 대한 우려와 의문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승화된 모성이 강조하는 것이 모성적인 ‘실천’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는 승화된 모성이 성별을 떠나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도덕적인 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해체된 가족의 화해를 위한 동력으로 나타나는 어머니 호명의 진정한 의미를 여기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이다.

III. 나오며

이상, 티에닝의 『목욕하는 여인들』를 중심으로 하여 중국 신시기 여성소설에 나타난 가족 담론의 일면을 살펴보았다.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가족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아버지의 혈연으로 묶이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 관념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엄마의 딸은 인정하지 않는 딸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혈연으로 제한되는 가부장제 전통적인 가족 관념의 배타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아버지의 딸들에 의한 엄마 딸의 죽음은 혈연성에 토대를 둔 배타성이 야기하는 가장 무서운 지점을 설명한다. 이는 가부장제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티에닝의 비판적인 시선을 잘 보여준다. 두 번째, 가족해체와 가족화해의 출발점을 모두 ‘어머니’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의 뼈대를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서 찾고자 하는 것으로, 가부장제 전통적인 가족 관념에 대한 비판 의식과 맞닿아 있다 하겠다. 이 때 여성성의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보호와 돌봄이라는 모성적인 원리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승화된 모성을 본질로 하는 ‘어머니’에 대한 호명은 물질화되고 광곽해진 사회, 삭막한 인간 관계를 치유할 대안으로 모성을 내세워온 그녀의 서사 윤리와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티에닝의 가족 쓰기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 관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어머니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정체성은 부정함

으로써 가부장제 가족 관념이 내재하고 있는 불평등한 성별 이데올로기의 그림자를 드러낸다. 이는 또한 해체된 가족의 화해에 대한 기대를 보호와 돌봄이라는 모성에서 찾는 것과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바, 자칫 가부장제 신화화된 어머니 상상에 포섭되어 여성에게 굴레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와 돌봄의 윤리로서의 모성이 강조하는 것이 모성적인 ‘실천’이라는 데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생물학적인 모성이 아닌 역할로서의 모성인 것이다. 이는 티에닝이 기대하고 추구하는 모성이 여성성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으로서의 그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별을 떠나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도덕적인 원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녀가 이 작품을 통해 해체된 가족을 화해하기 위한 동력으로 ‘어머니’를 내세우는 또 다른 의미가 여기에 있으리라 본다.

❖ 참고 문헌

- 미셸 바렛, 메리 매킨토시,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김혜경 옮김, 여성사, 1994.
- 조세핀 도노반, 『페미니즘 이론』, 김익두·이월영 옮김, 문예출판사, 1998.
- 로즈마리 통, 『페미니즘 사상』, 이소영 옮김, 한신문화사, 1999.
- 아드리엔느 리치,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김인성 옮김, 평민사, 2002.
- 함인희, 「한국 가족의 여성학적 재구성」, 『동덕여성연구』 제5호, 2000.
- 강경구, 「중국현대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해체와 통합」, 『중국문화연구』 1집, 2002.
- 우미영, 「현대소설과 가족의 탈근대」, 『한국문예비평연구』 21호, 2006.
- 铁凝, 『大浴女』,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06.
- 邵宁宁 「牢笼抑或舟船-20世纪中国文学中“家”的形象演变」, 『西北师大学报』, 1999年9月.
- 王一川, 「探访人的隐秘心灵—读铁凝的长篇小说《大浴女》」, 『文学评论』, 2000年6期.
- 谢玉娥 「“大欲”之后的“大浴”—“大浴女”性别意向解读」, 『河南大学学报』, 2001年3期.
- 赵欢欢, 「“欲”与“浴”—论铁凝的小说《大浴女》」, 『周口师范学院学报』, 2003年第6期.
- 张燕萍 「洞察女性 展示人性—评铁凝长篇小说《大浴女》」, 『河南大学学报』, 2005年5期.
- 靳风兰, 「母性符号的改写, 女性人格的重建—解读铁凝的《大浴女》」, 『武汉科技学院学报』, 2005年11月.
- 刘成才, 「无母’ 审母与自审意识—铁凝小说中的母亲形象分析」, 『太原师范学院学报』, 2006年4期.

❖ ABSTRACT

An aspect of 'Family' demonstrated in Chinese New Period women's novels

- Focusing on 『The Bathing Woman』 -

Choi, Eun Jeong

This article is written on the ground that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Chinese New Period women's novels is about family dissolution and calling and it is examined based on analysis of 『The Bathing Woman』 by Tie Ning. In 『The Bathing Woman』, the family seems 'Regular' externally but it is actually fragmented internally. The author offers patriarchal perspective on 'Family' from the eyes of daughter of the family. The problems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it is the problem of exclusiveness embedded in the essential characteristic of family represented by blood relation. Second, it is the research on the reason for family dissolution. Tie Ning finds the reason at 'Unmotherly mother, that is the lack of maternal instinct. Third, it is the expectation of the restoration of dissolved family. Tie Ning's indication of 'Family' is equal to 'Mother' and 'Mother' is the source and power that can heal and restore the dissolved family in her novel. It is expansion of maternal instinct represented by protection and caring into 'Practical action' and it is meaningful in a way that it expands the principle of maternal instinct and sublimates it into universal morality.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it could be another moral system that could suppress the females in other ways.

Key Words

『목욕하는 여자들』, 가족해체, 가족호명, 어머니 호명, 승화된 모성
『The Bathing Woman』, Family dissolution, Family calling, Mother calling,
Sublimated maternal instinct

논문접수일: 2014. 05. 10

심사완료일: 2014. 06. 09

게재확정일: 2014. 06. 13